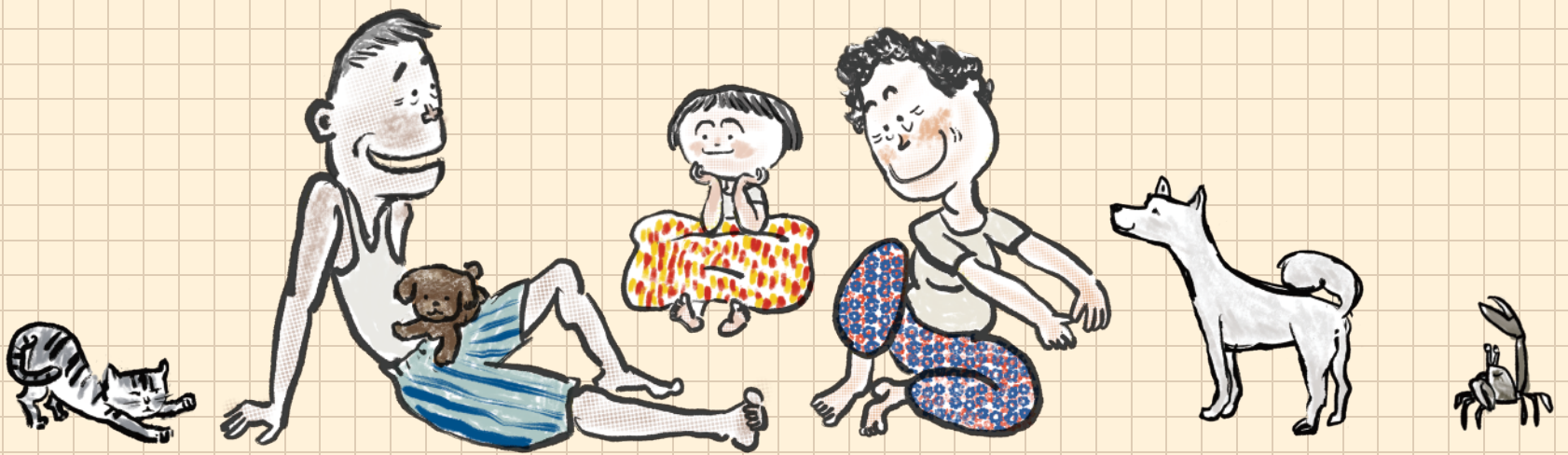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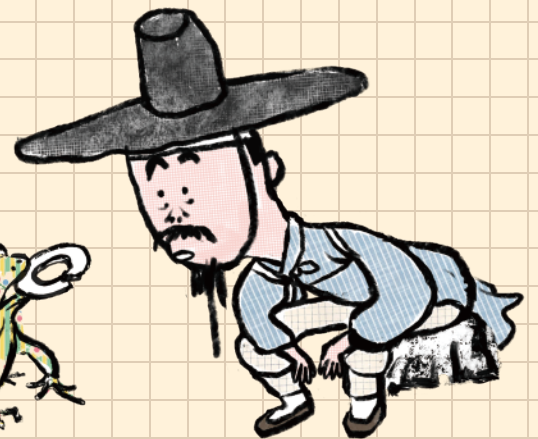
- 굽이굽이 전해오는 남과 북의 옛이야기 -

뚝뚝! 은혜갚으러 왔습니다

선안나 글 | 심은숙 그림







글 선안나

어린 시절 동화책을 많이 읽고 자라, 동화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아동문학을 전공하여 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단국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어요. 새벗문학상과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었고, 아동문학평론에 평론이 당선되었어요. <온양이>, <형이 형인 까닭은?>이 국어 교과서에 실렸고, 한국아동문학상 · 한국어린이도서상 · 세종아동문학상 · 열린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어요. <약속은 대단해>, <마야와 마법의 집 1,2>, <들꽃처럼 별들처럼>, <삼식이 뒤로 나가>, <고양이 조문객>, <위험한 소년>, <일제강점기 그들의 다른 선택>등 많은 어린이청소년 책을 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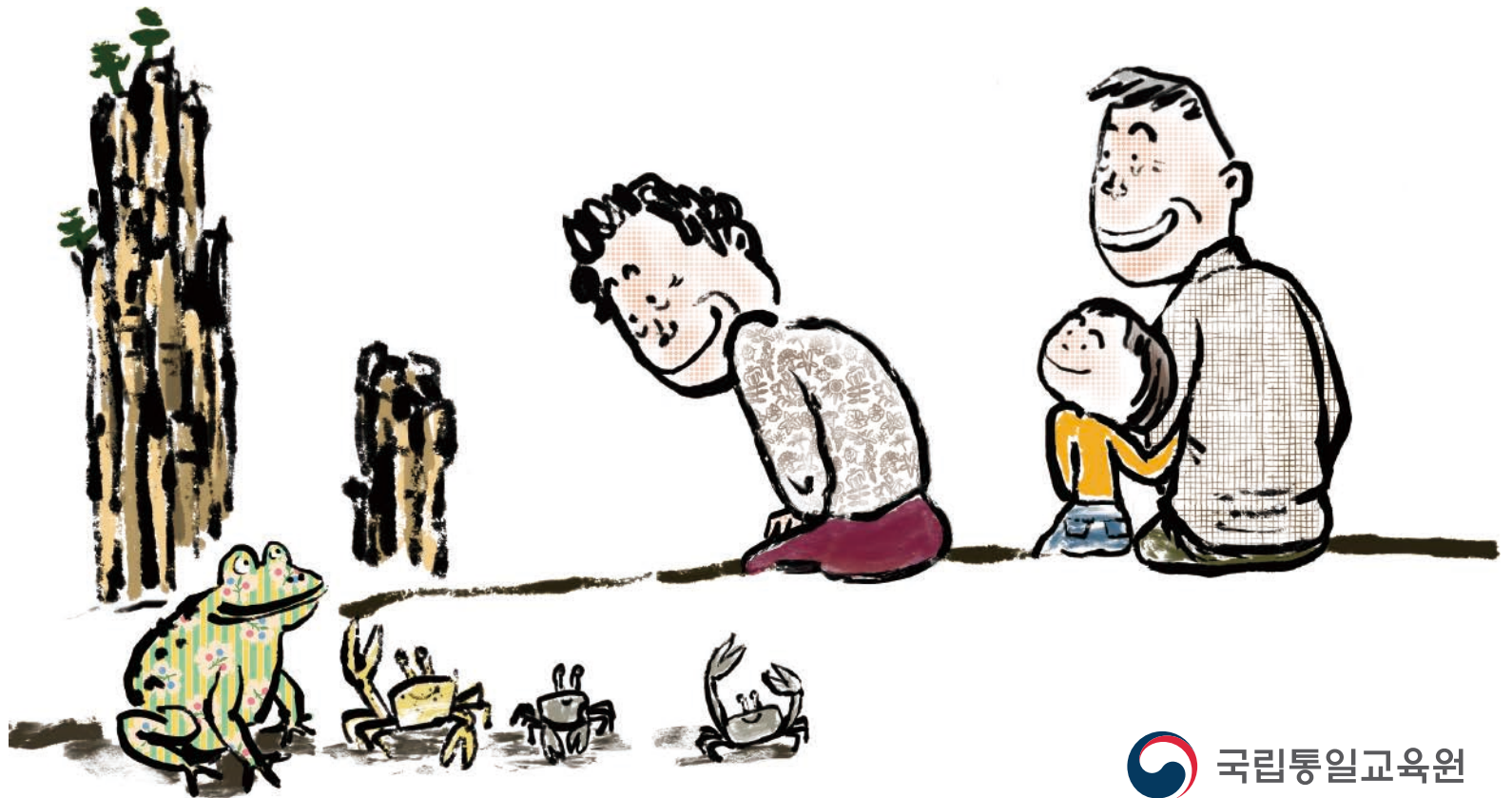
그림 심은숙

대학에서 한국화를 공부하고, 우연히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여러 권을 그렸어요. 사람 그리기를 좋아하고, 길에서 아가들을 보면 사탕 하나 주며 말 한번 걸어보고 싶지만 애써 참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져요. 내가 그리는 그림은 따듯하고 솔직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린 책은 <빨간 부채 파란 부채> <밤똥 참기> <우리 아빠는 내 친구> 등이 있어요.

- 굽이굽이 전해오는 남과 북의 옛이야기 -

뚝뚝! 은혜갯으로 왔습니다

선안나 글 | 심은숙 그림





통일 대한민국 어린이의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

- 선안나 -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8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남북은 참 많이 변화하고 서로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분단 현실을 어떻게 가르치고, 통일 미래의 꿈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늘 새롭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성과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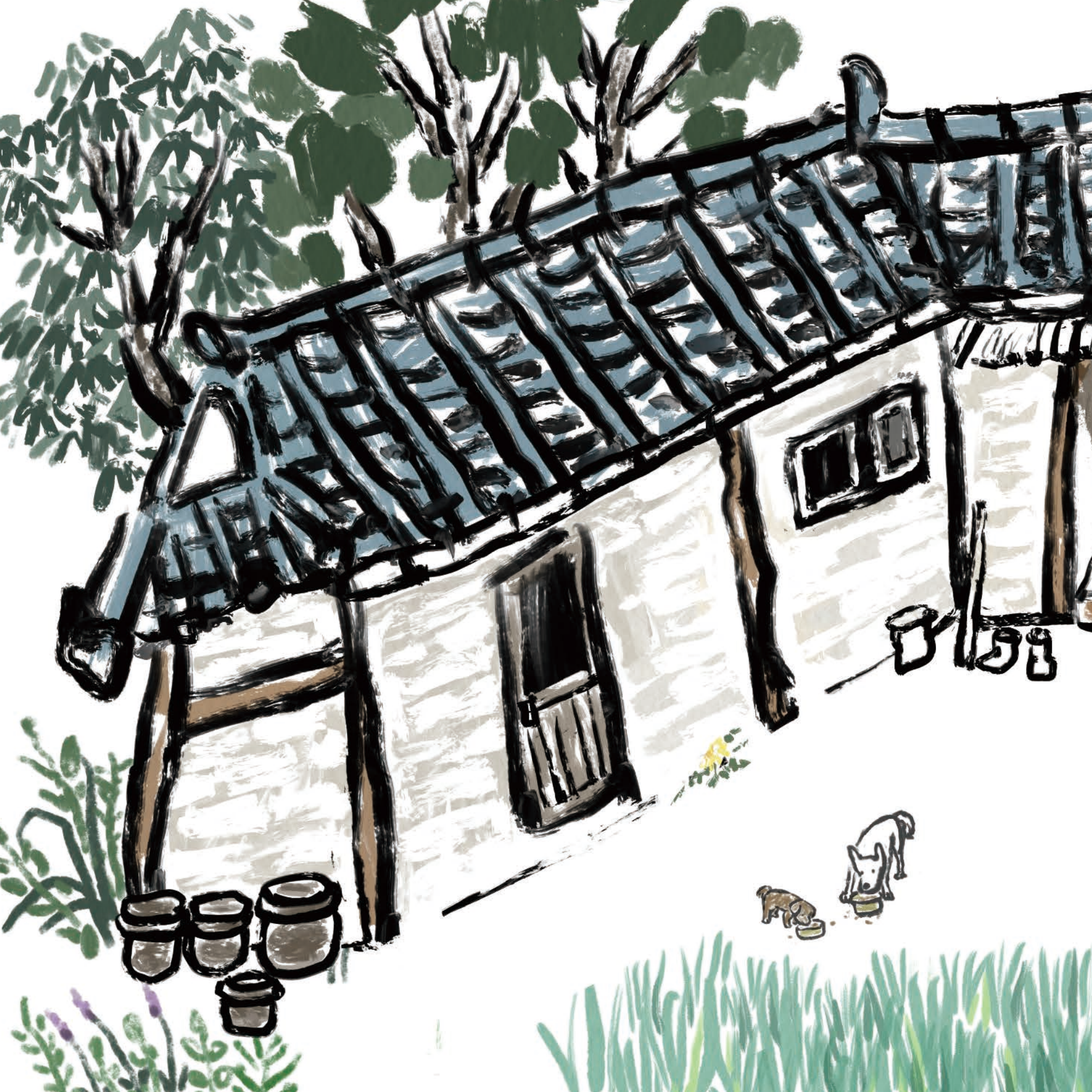
고대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설화는 민족의 공동 유산입니다. ‘선녀와 나무꾼’은 금강산에서 유래한 전설이지만 남한 어린이들이 알고, ‘흥부 놀부’는 전라북도 장수군의 민담이지만 북한 어린이들도 압니다. 따라서 남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래동화를 많이 읽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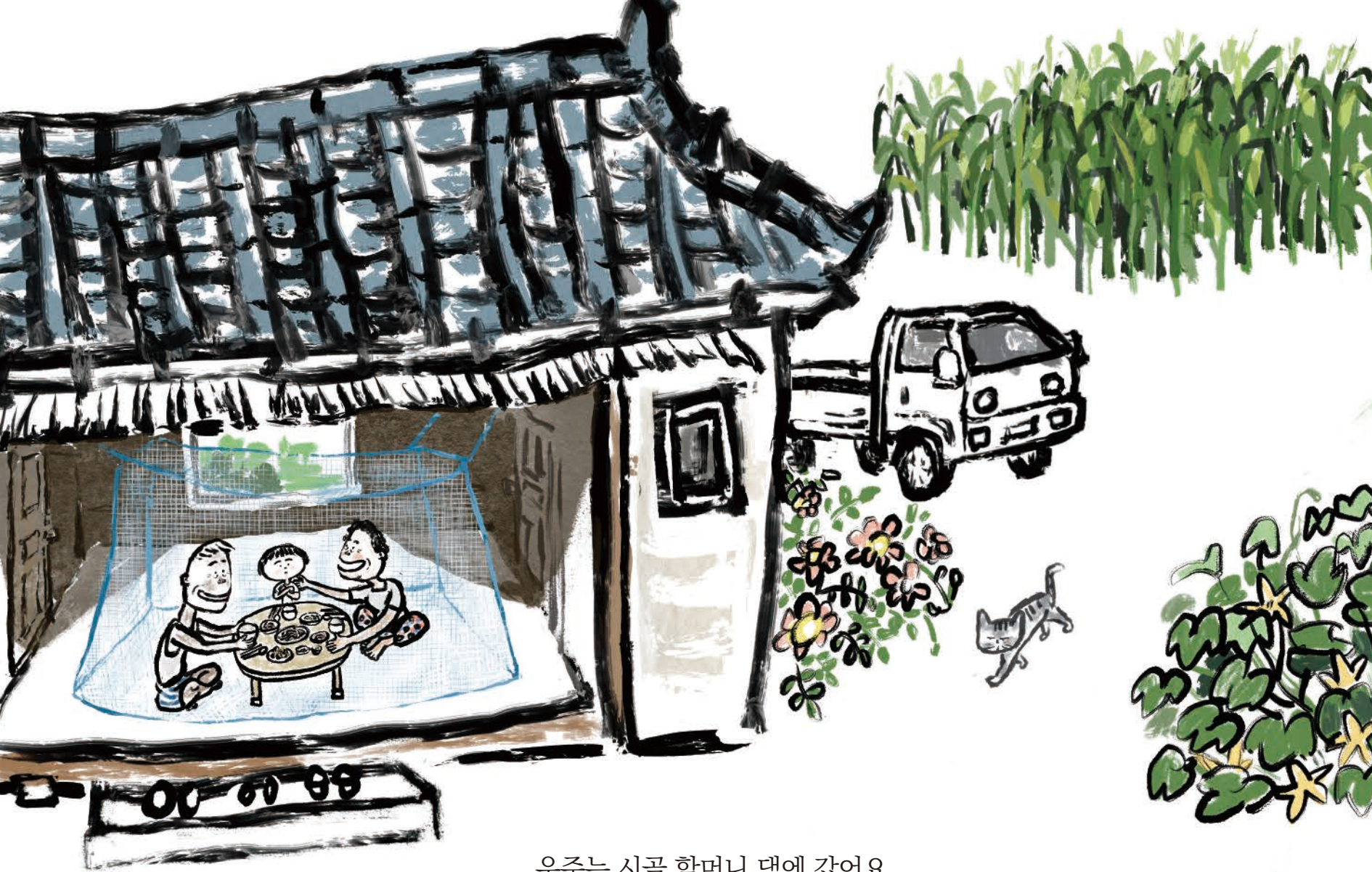
이 책 『똑똑!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는 남북의 잘 알려지지 않은 전설을 발굴하여 그림동화로 엮었습니다. 미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동물이 은혜 갚는 이야기이지요. 다르지 않은 남북의 이야기와 주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세계관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 어린이에게 ‘시중호’나 ‘총석정’은 낯선 단어일 것입니다. 시중호와 총석정이 북한 강원도에 있기 때문이지요. 감탕(진흙) 전설은 석호인 시중호의 지형적 특성에서 태어난 설화지요. 동해안의 명승지 관동팔경 중에서도 시중호와 총석정은 아름답기로 손꼽힙니다. 이 책을 통해 남한 어린이들은 같은 한반도이지만 갈 수 없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 북한 어린이가 이 책을 읽는다면, 대전과 보문산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알게 되겠지요? 이렇게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점을 알게 될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똑똑!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가 남북 어린이 사이에 연결된 작지만 튼튼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갔어요.

아빠는 제주도 현장에 일하러 가고,

엄마는 호주로 출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열 밤이나 떨어져 지내야 해요.

“우주야, 많이 먹어. 너 좋아하는 불고기랑 잡채도 했어.”

할머니가 정성껏 밥을 차려주셨어요.

“녹두지짐도 먹어 봐. 아주 맛나다.”

할아버지는 한 그릇 푹딱 드셨지만, 우주는 조금 먹다 말았어요.

시무룩한 우주를 달래주려고, 두 분은 소곤소곤 의논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이야기 내기를 할 건데,
누구 얘기가 더 재밌는지 우주가 심판 봐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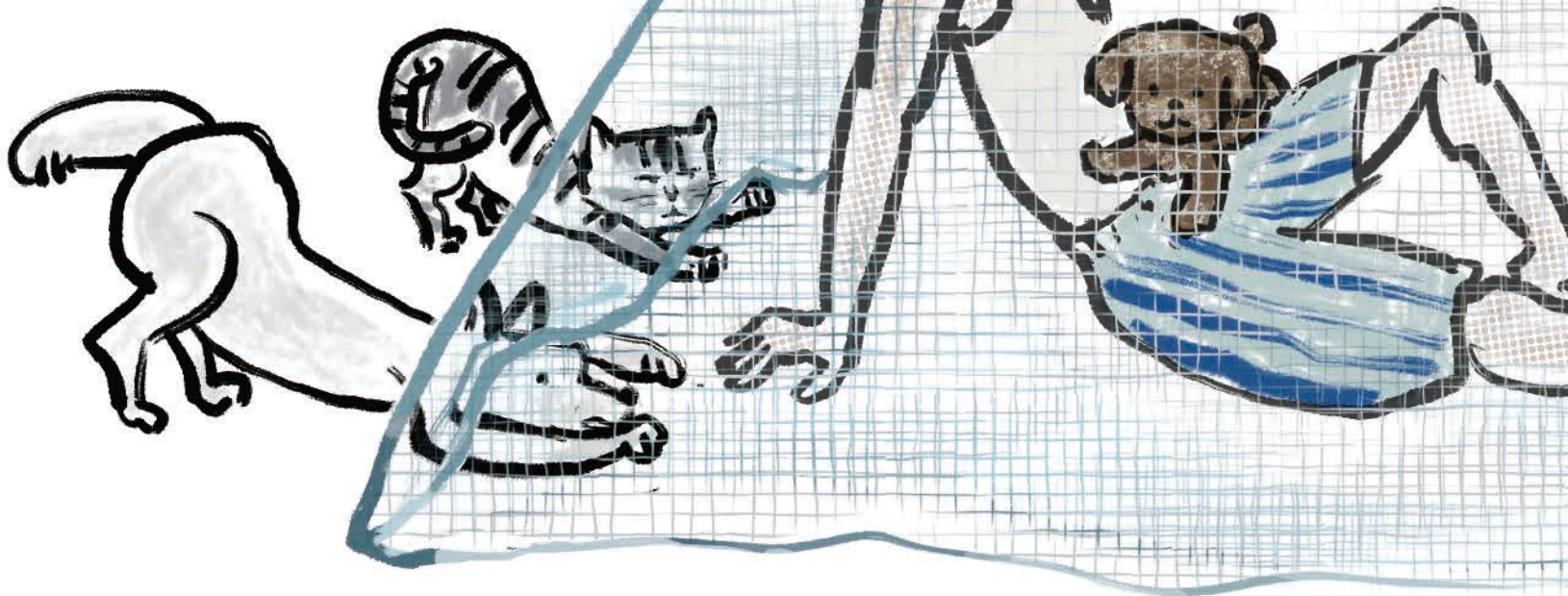
“제가요?”

“지는 사람이 우주 소원 한 가지 들어주기 내기란다.”

재미난 옛날이야기도 듣고 소원도 한 가지 이룰 수 있다니,
핑 먹고 알 먹기잖아요?

“좋아요!”

우주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내 고향 통천에 시증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거기 전해져 오는 전설이란다.”
할머니가 먼저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옛날 호수 근처 어느 마을에 정갑이라는 사람이 살았단다.
정갑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해 다 팔았어.
나무를 한 짐 해오다 호숫가에서 쉬는 게 큰 기쁨이었지.
어느 날 정갑은 뜻밖의 광경을 보았어.
커다란 게가 왜가리와 싸우고 있는 거야.
“이놈, 어서 항복하지 못해?”
왜가리는 게를 쫓아대며 잡아가려 했어.
“안 돼. 난 애들을 돌봐야 한단 말이야.”
어미 게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풀줄기를 꼭 물고 있었지.



억센 왜가리의 공격에 게는 점점 힘을 잃었어.

물고 있던 풀까지 곧 뽑힐 것 같았지.

정감은 이미 게와 새끼들이 붙쌍했어.

“게도 열심히 살려고 태어났지, 네 밥이 되려고 태어났겠느냐.
훤이, 저리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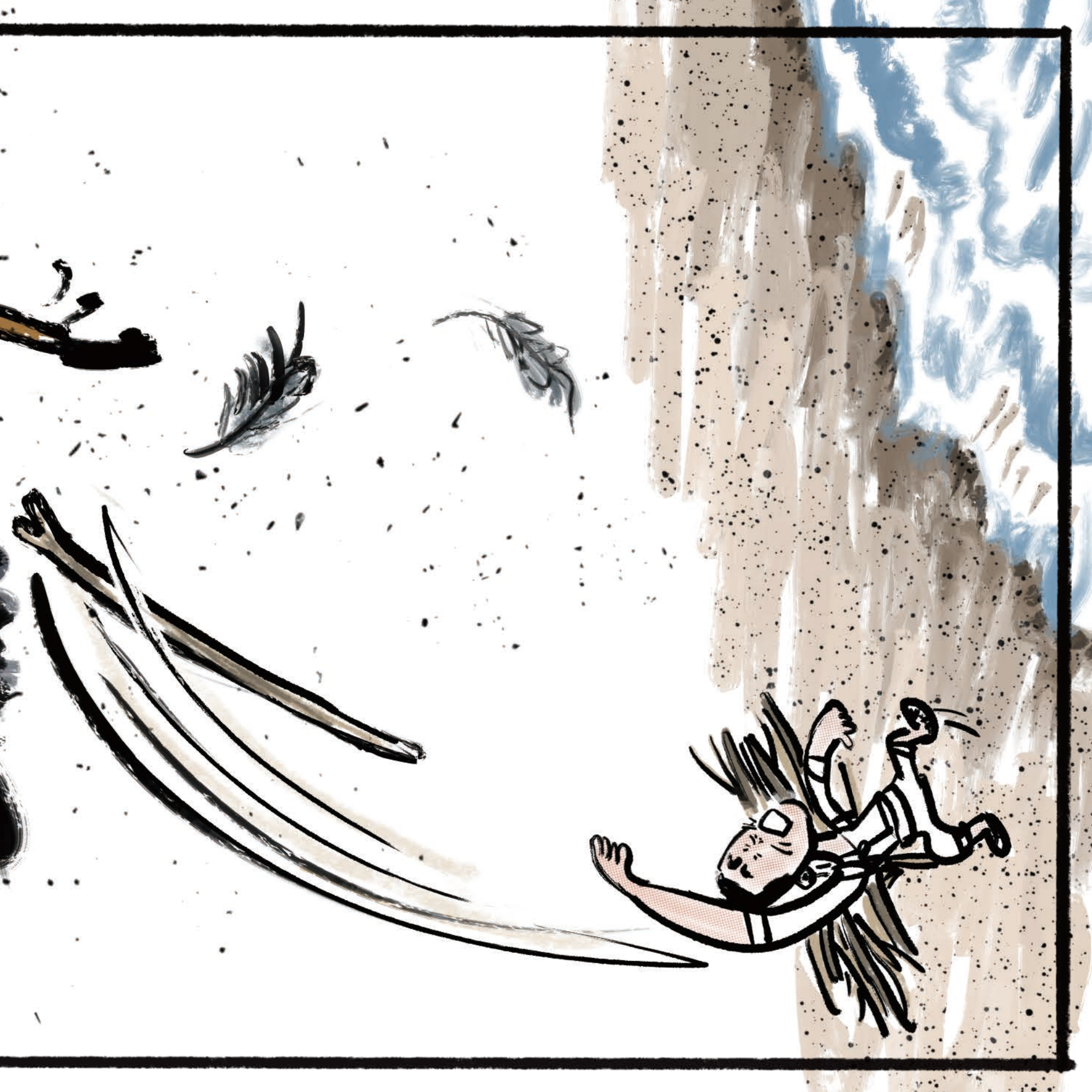
정감은 지게 작대기를 왜가리한테 던졌어.

게를 물고 날아오르던 왜가리가 놀라 게를 떨어뜨렸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게는 인사라도 하듯 정감을 한참 쳐다보았어.





세월이 가도 정갑은 여전히 가난했어.

온몸이 아팠지만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만 했지.

그날도 나무를 해오던 정갑은 호숫가에서 쉬었어.

“에고, 뼈마디마디가 쭈시네…….”

진땀으로 푹 젖은 윗도리를 벗고 정갑은 잠시 누웠어.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신나게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지.

깨어나서 자신의 몸을 본 정갑은 깜짝 놀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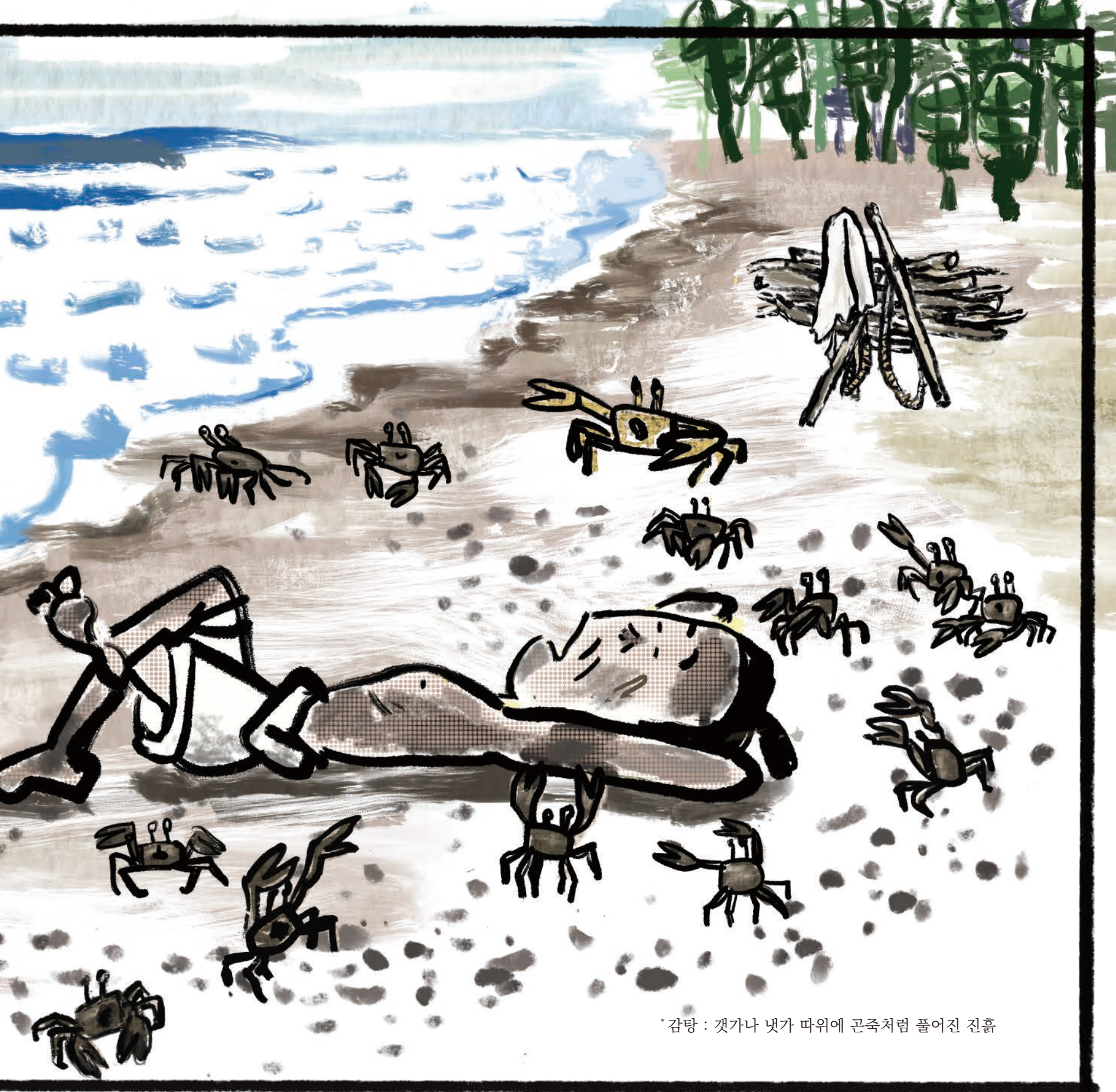
시커먼 흙이 잔뜩 묻어 있었거든.

“아니, 이게 뭐지?”

가만 보니 감탕^{*}을 입에 문 게들이 호수에서 줄줄이 나와,

정갑의 몸에 발라주고 있지 뭐야.





*감탕 : 갯가나 냇가 따위에 곤죽처럼 풀어진 진흙

큰게 한 마리가 가까이서 정갑을 쳐다보고 있었어.

“아니 넌, 그때 그 어미게 아니냐?”

정갑은 이상한 느낌에 벌떡 일어났어.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날아갈 듯 가볍지 뭐야.

“이것 참 신기한 일이군.”

정갑은 팔다리를 흔들며 꺾충꺾충 뛰어보았어.

게들도 앞발을 들고 춤추듯 맴돌았지.

정갑은 나뭇짐을 거뜰히 지고 집으로 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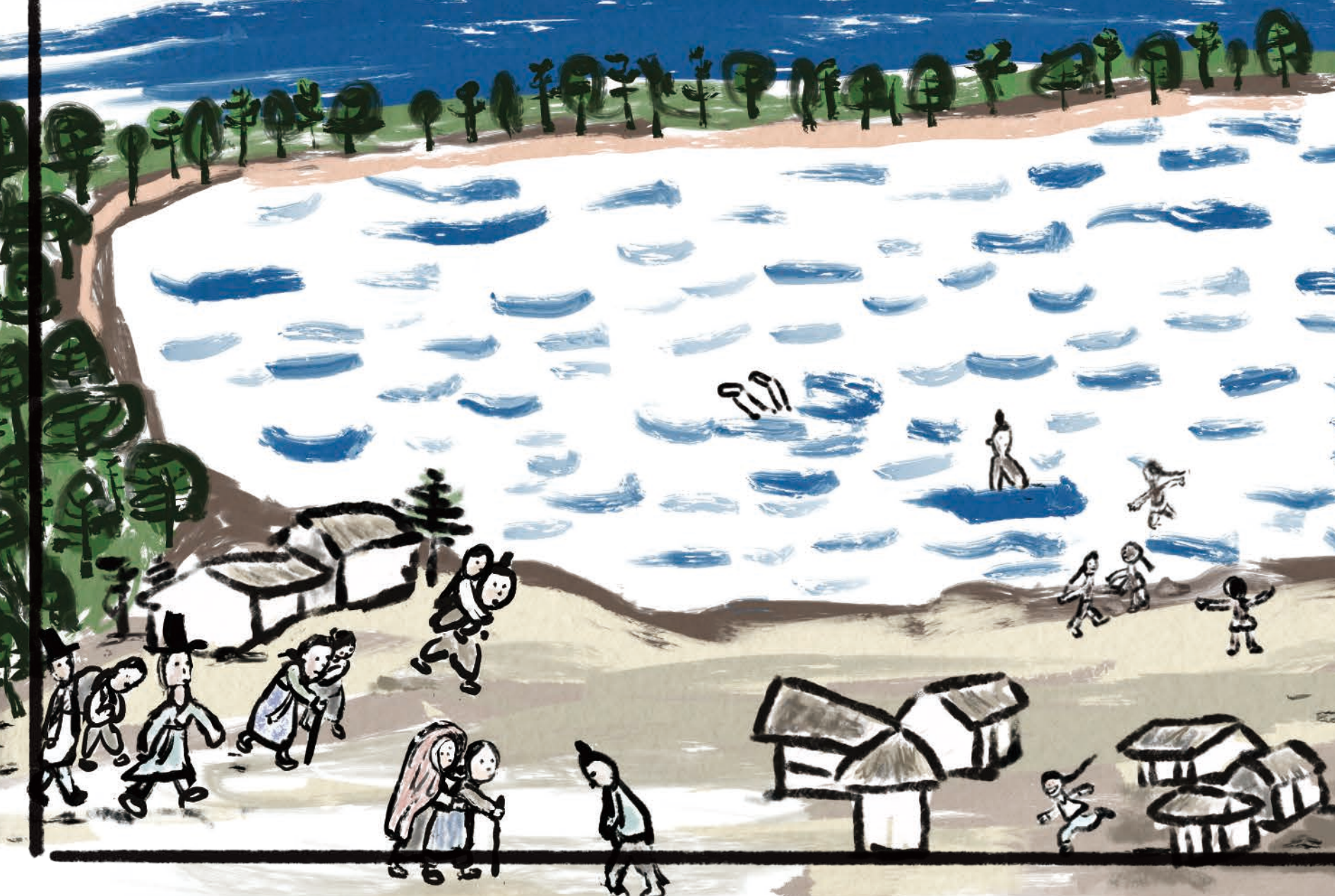
그 뒤 정갑은 호숫가에 집을 지었어.

“여기저기 쭉시고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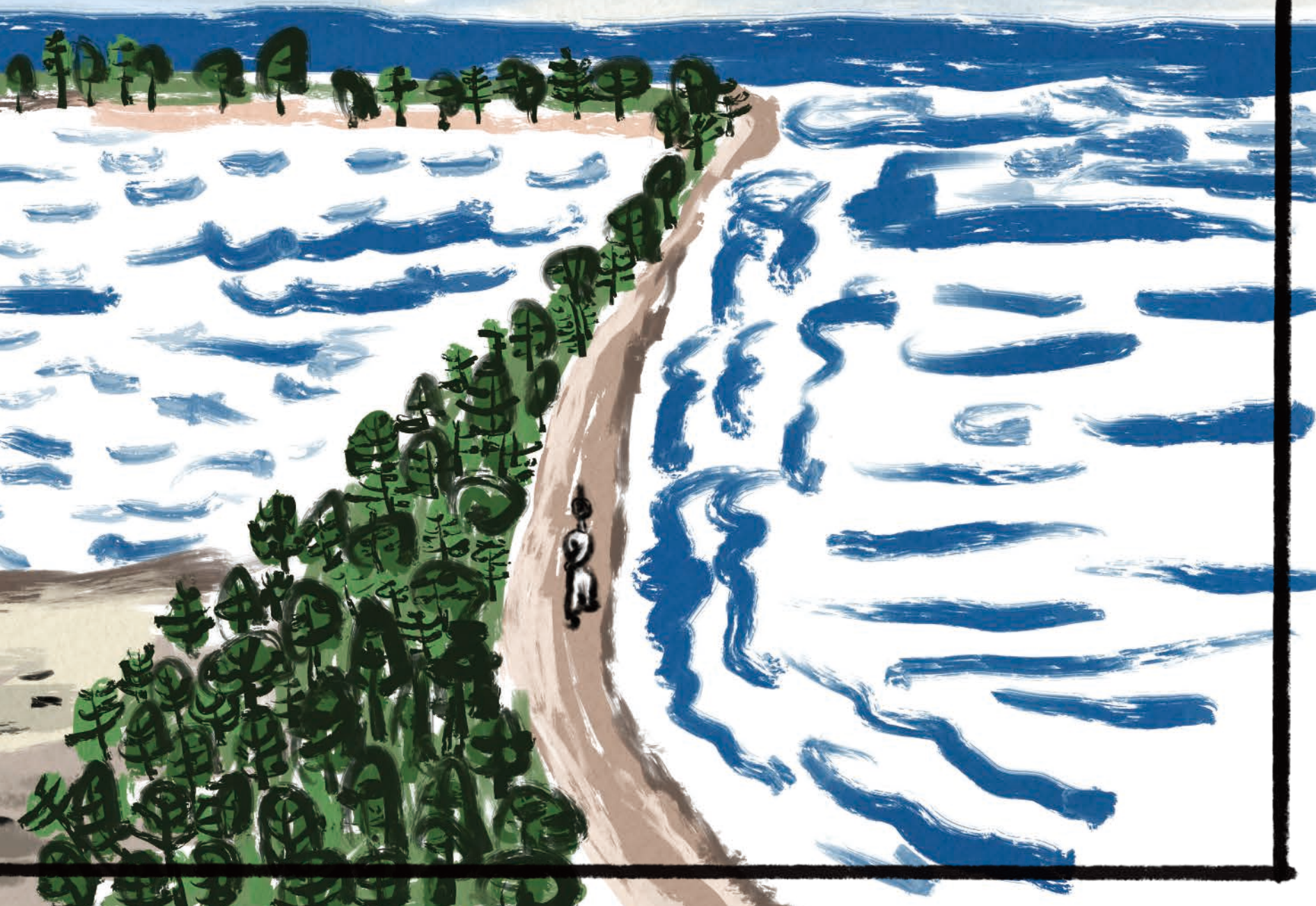
소문을 냈지.

찾아온 사람들에게 감탕을 발라 낫게 해주었고,

정갑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어.



이야기를 마치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한에선 감탕을 진흙이라고 하지.
어렸을 때 엄마랑 진흙 온천을 해 봤는데,
몸이 진짜 날아갈 듯 가벼웠단다.”
“정말요? 나도 진흙 온천 해보고 싶어요!”
진흙미끄럼을 타는 상상만 해도 우주는 신났어요.






“나중에 통일되면 할머니랑 진흙 온천 하러 가자.
시중호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림처럼 멋진 총석정도 보러 가고……
가까운 금강산 구경도 하자꾸나.”
할머니 목소리가 슬프게 들렸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그런가 봐요.
“꼭 그렇게 해요, 할머니.”
우주는 할머니 손을 꼬옥 잡아드렸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옛날이야기를 하실 차례예요.
“내 고향 대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단다.
지금부터 보물산 얘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보렴.”



옛날 옛적에 서울에서 벼슬을 하던 대감이
대전에 불일을 보러 왔어.
날이 무더워 대감은 큰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지.
바로 옆에 방죽*이 있었는데 가뭄으로 다 말라붙어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두꺼비 한 마리가 힘겹게 기어 나와,
대감의 발밑에 쓰러져 헐떡이지 뭐야.

*방죽 : 물이 넘치거나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운 둑

“너도 고생이 많구나. 찢찢.”

대감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근처 집에서 물을 한 바가지 얻어와 끼얹어주었지.

“옛다, 힘내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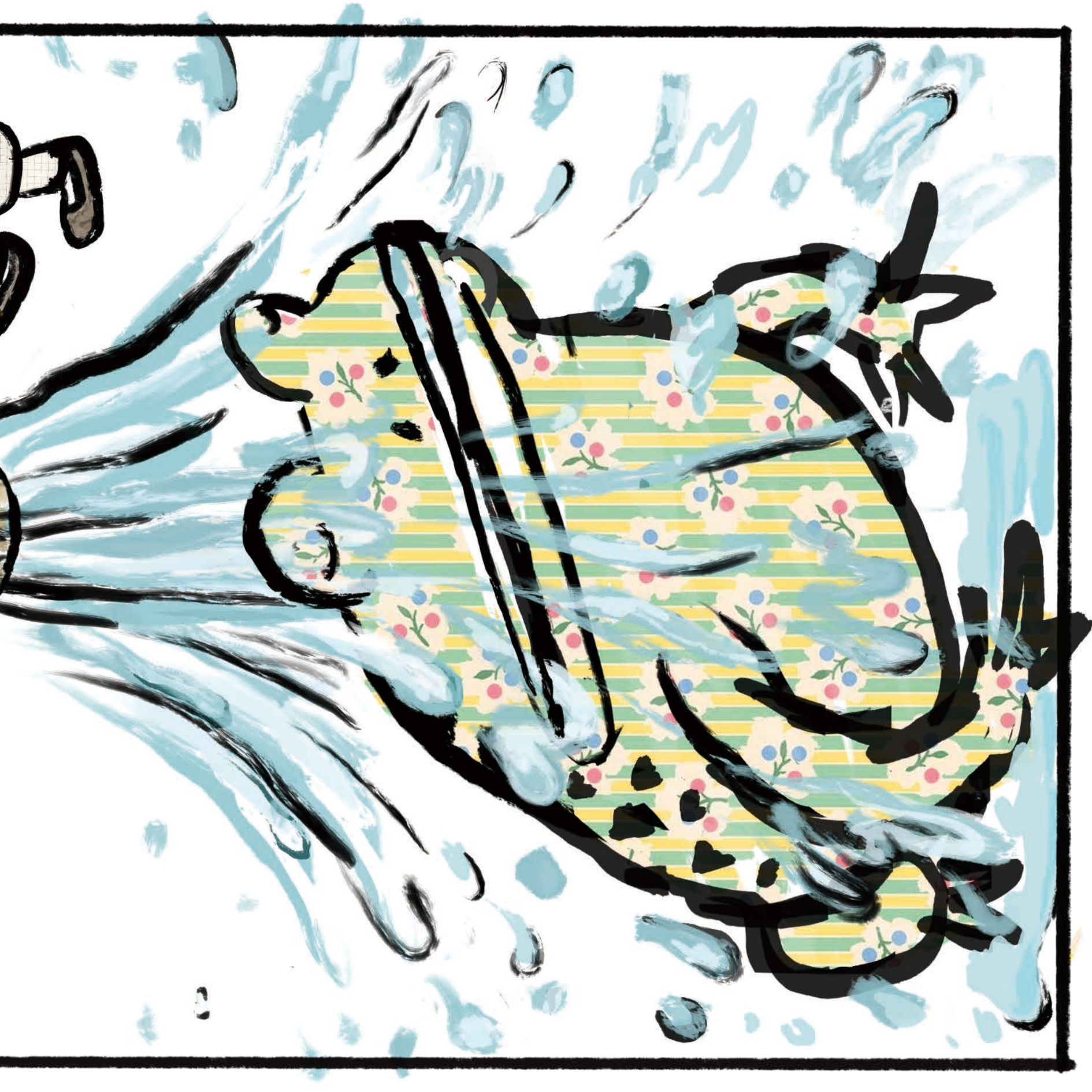
정신을 차린 두꺼비는 고인 물을 한참 마셨어.

그러곤 대감을 쳐다보며 인사라도 하듯 눈을 꾹벅였지.

두꺼비는 곧 풀숲으로 사라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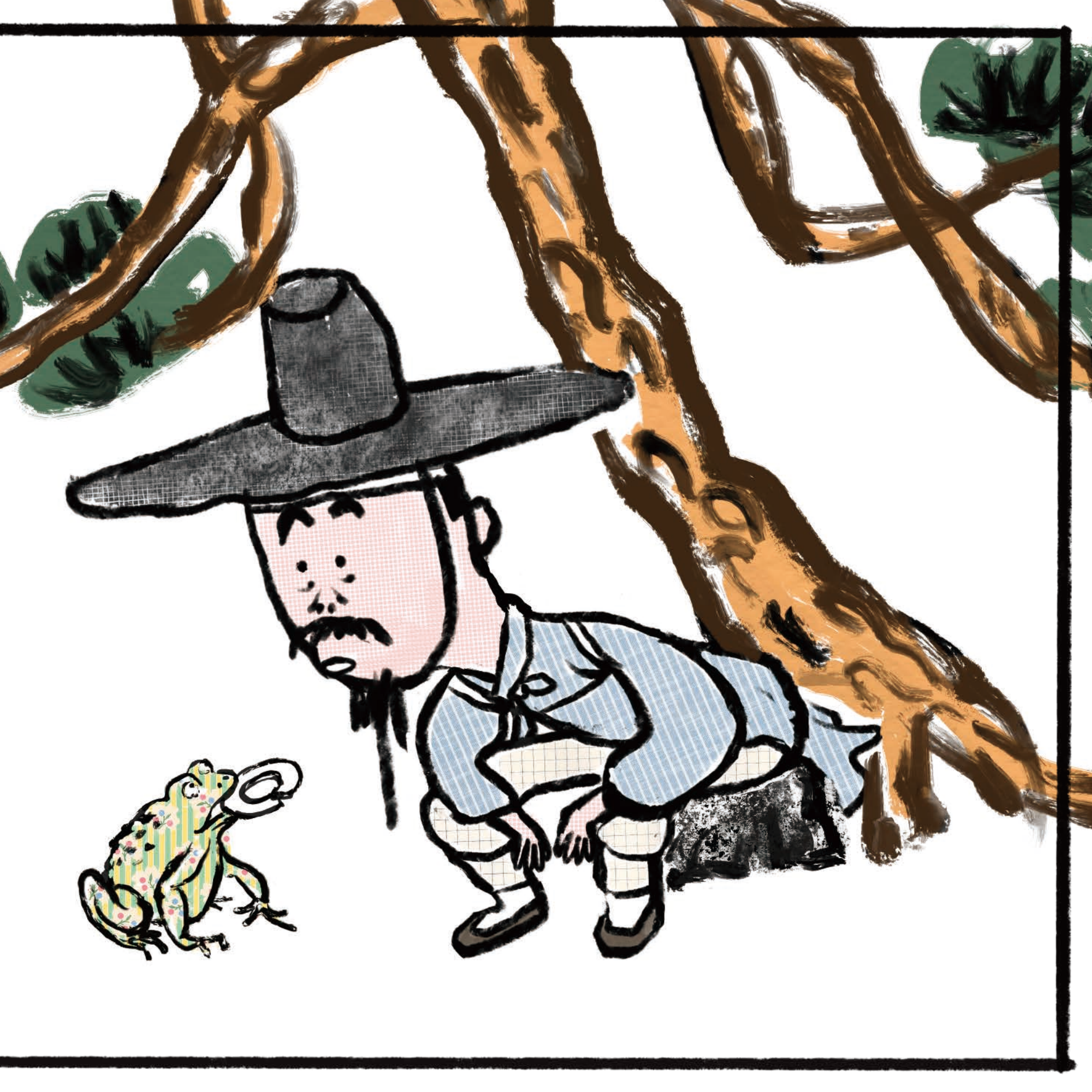
대감은 그 일을 까맣게 잊었어.





이듬해 대감은 다시 대전으로 가게 되었어.
우연히 그 나무 아래 다시 쉬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다가오는 거야.
“아니, 입에 뭘 물고 있는 거지?”
대감은 어리둥절해서 지켜보았어.
두꺼비는 깨진 접시를 대감 발밑에 내려놓곤,
쳐다보며 눈을 껌벅거렸어.
“아니, 너는 작년의 그 두꺼비 아니냐?”
대감은 그제야 기억이 났지.
깨진 접시를 남겨놓고 두꺼비는 풀숲으로 사라졌어.
기이한 생각이 들어 대감은 접시를 집으로 가져갔지.





깨진 접시라 장식도 할 수 없고
대강은 탁자 밑에 놓아둔 채 잊어버렸지.
“가만있자, 재떨이가 어디로 갔나?”
하루는 담배를 피우다 재떨이를 찾다 보니
탁자 밑에 깨진 접시가 보였어.
대강은 급한 대로 접시에 담뱃재를 떨어뜨렸지.



“아니, 웬 재가 이렇게 많이 쌓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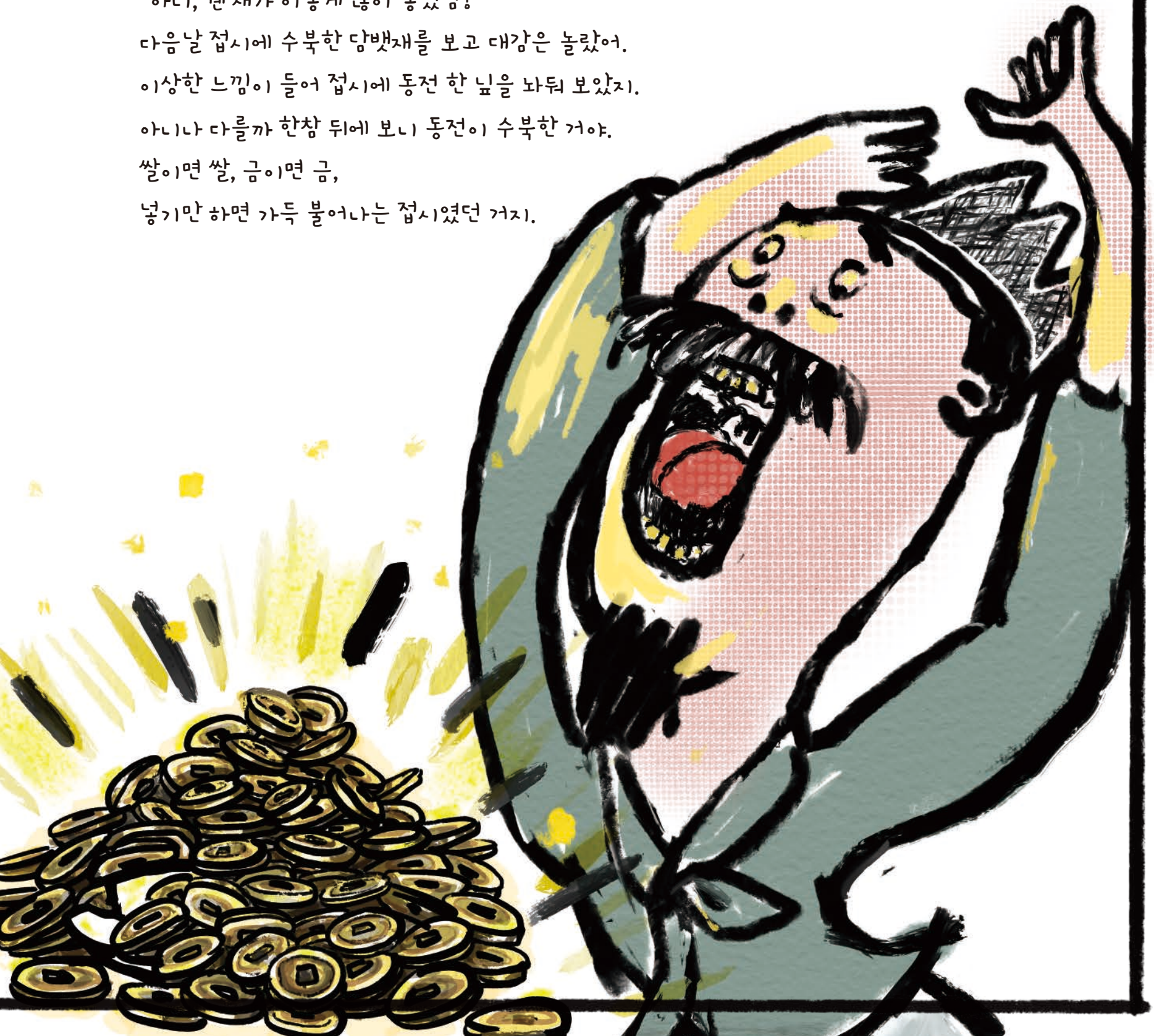
다음날 접시에 수북한 담뱃재를 보고 대감은 놀랐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접시에 동전 한 닢을 놔둬 보았지.

아니나 다를까 한참 뒤에 보니 동전이 수북한 거야.

쌀이면 쌀, 금이면 금,

넣기만 하면 가득 불어나는 접시였던 거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횡재했다고 기뻐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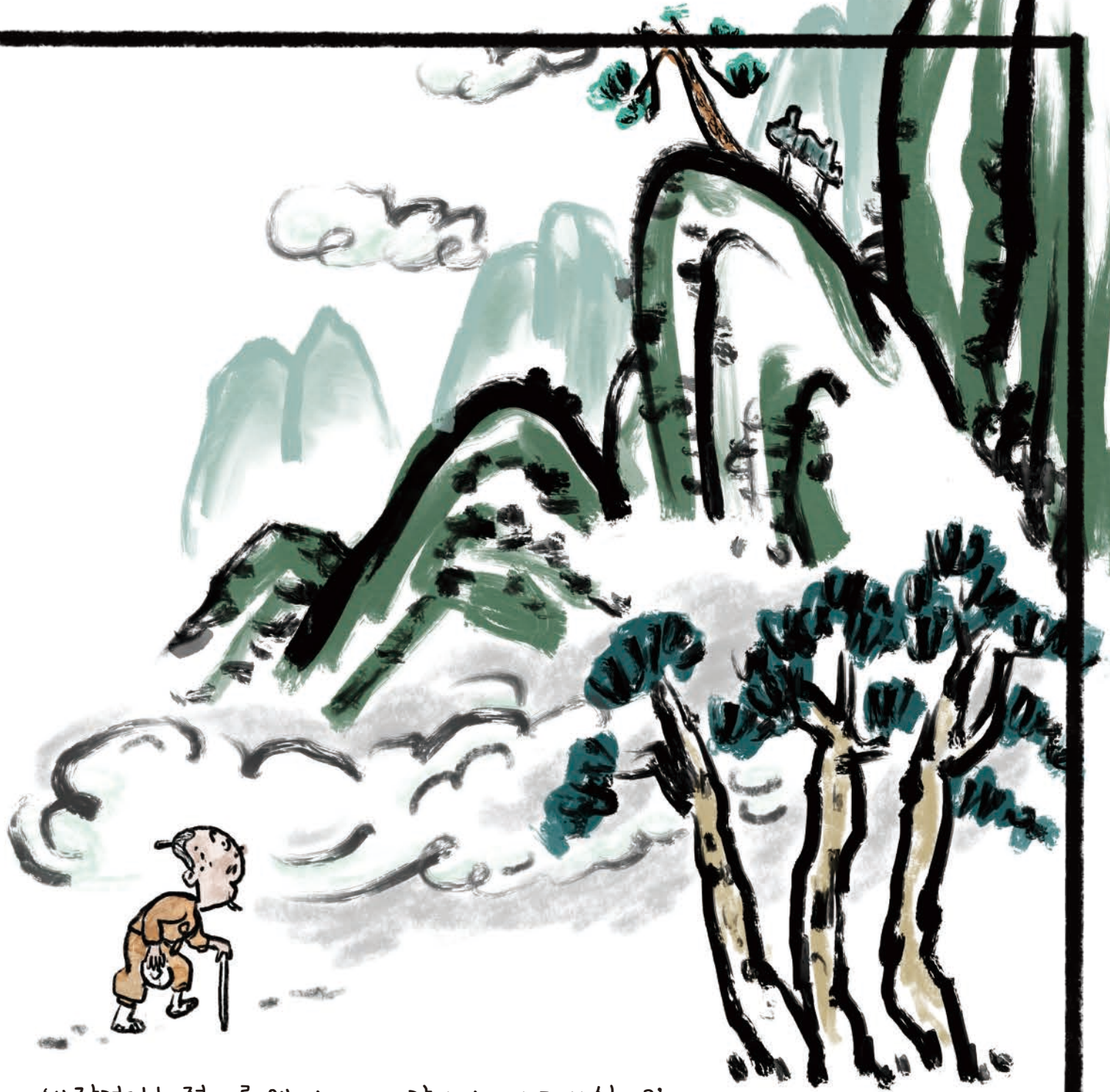
그러나 대감은 접시로 인해 오히려 불행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보물 접시가 있다는 것을 알면 탐내는 자가 생길 거야.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자손들은 접시만 믿고
일하지 않을지도 몰라.’

생각 끝에 대감은 늙은 하인에게 말했어.

“이걸 저 산 깊은 골짜기에 버리고 오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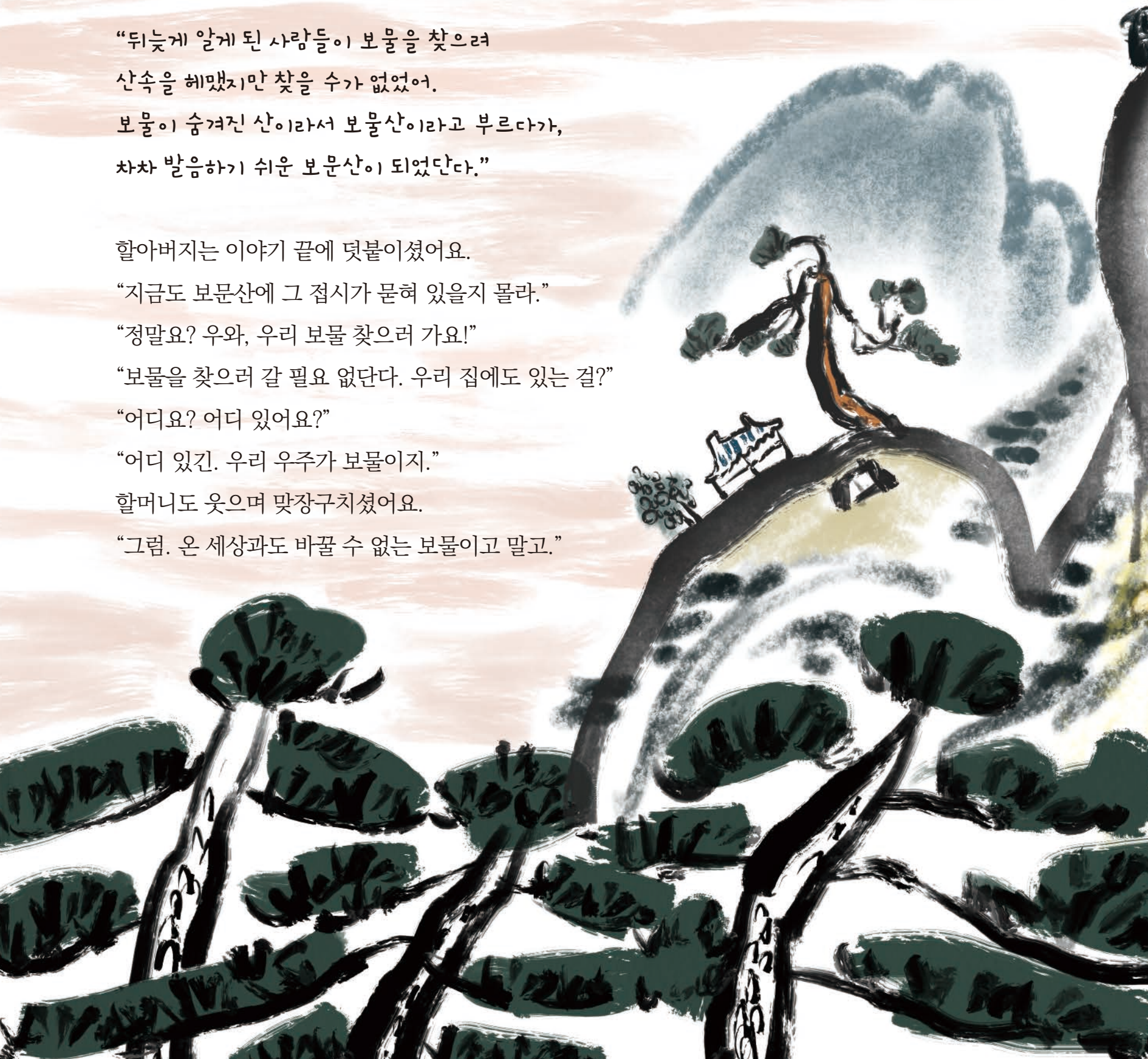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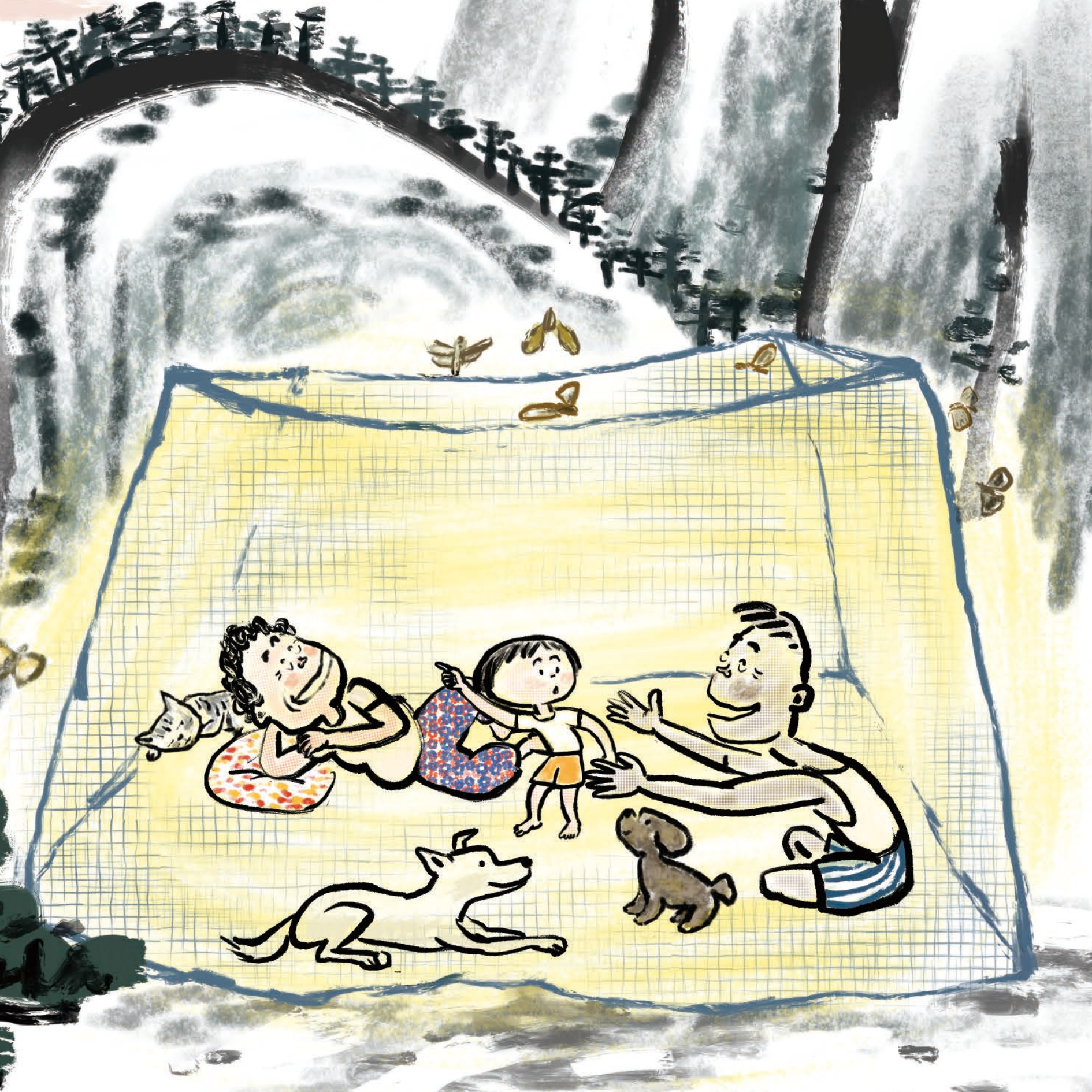
‘보잘것없는 접시를 왜 여기까지 갖다버리라고 하십니까?’
하인은 이상했지만 잠자코 대감의 말을 따랐지.
늙은 하인이 죽고 나자, 접시가 있는 곳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어.

* 형제: 뜻밖의 재물을 얻음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이 보물을 찾으려
산속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보물이 숨겨진 산이라서 보물산이라고 부르다가,
차차 발음하기 쉬운 보문산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 끝에 덧붙이셨어요.
“지금도 보문산에 그 접시가 묻혀 있을지 몰라.”
“정말요? 우와, 우리 보물 찾으러 가요!”
“보물을 찾으러 갈 필요 없단다. 우리 집에도 있는 걸?”
“어디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우리 우주가 보물이야.”
할머니도 웃으며 맞장구치셨어요.
“그럼.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고 말고.”





조금 뒤 엄마 아빠가 영상 전화를 했어요.

엄마 뒤로 초원과 양떼가 보이고, 아빠 뒤로 푸른 바다가 보였지요.

“나도 양 보고 싶어요. 바다에도 가고 싶어요!”

우주가 투덜대자 엄마가 말했지요.

“나중에 가족여행 하자꾸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시고.”

통화가 끝난 뒤 우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가족여행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북한에 있는 내 고향이지.

우리 우주한테 꼭 보여주고 싶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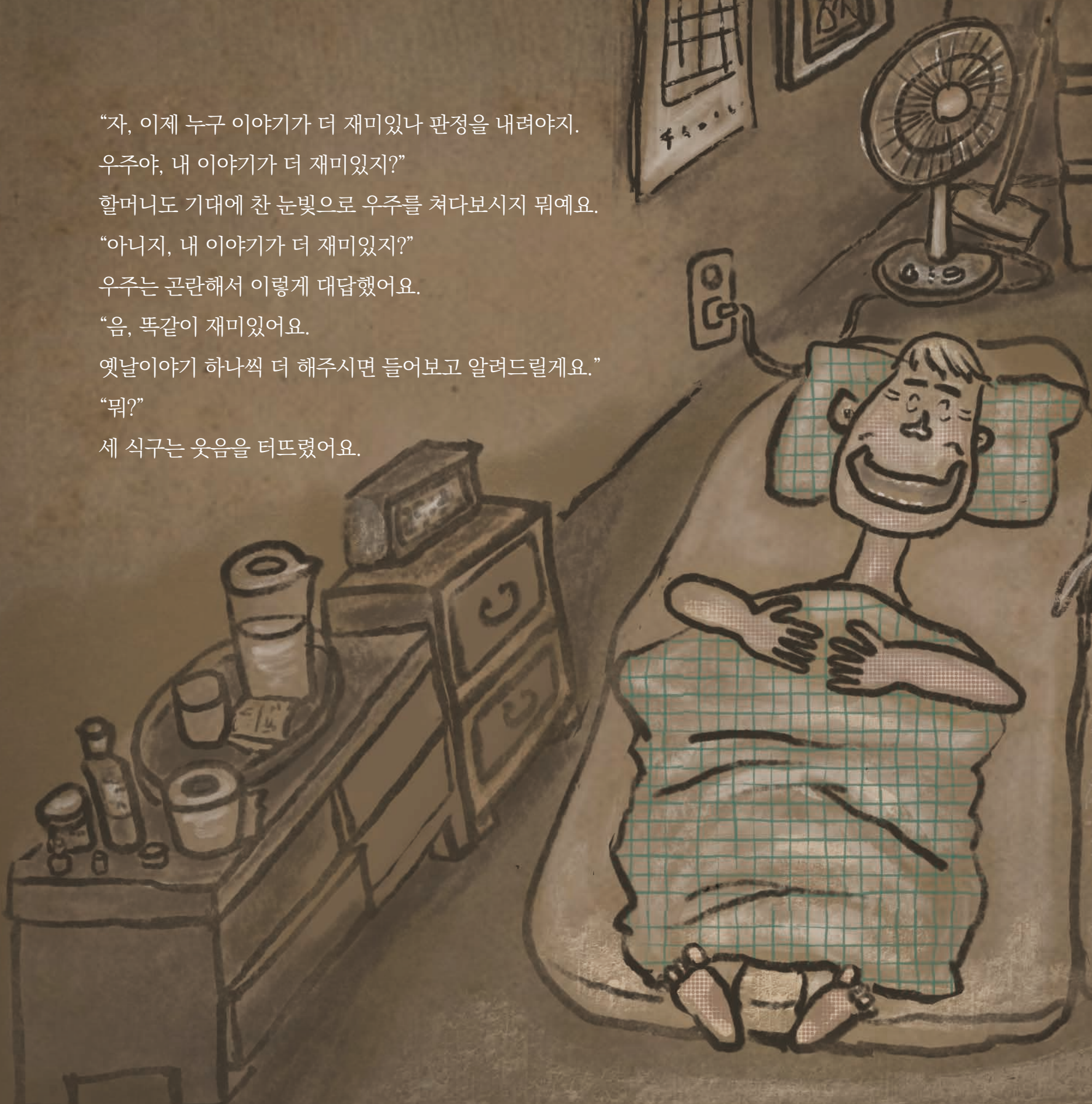
친척들도 만나고, 또래 친구도 만나서 놀면 참 좋겠지?”

“네, 할머니.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누구 이야기가 더 재미있나 판정을 내려야지.
우주야, 내 이야기가 더 재미있지?”
할머니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우주를 쳐다보시지 뭐예요.
“아니지, 내 이야기가 더 재미있지?”
우주는 곤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음, 똑같이 재미있어요.
옛날이야기 하나씩 더 해주시면 들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뭐?”
세 식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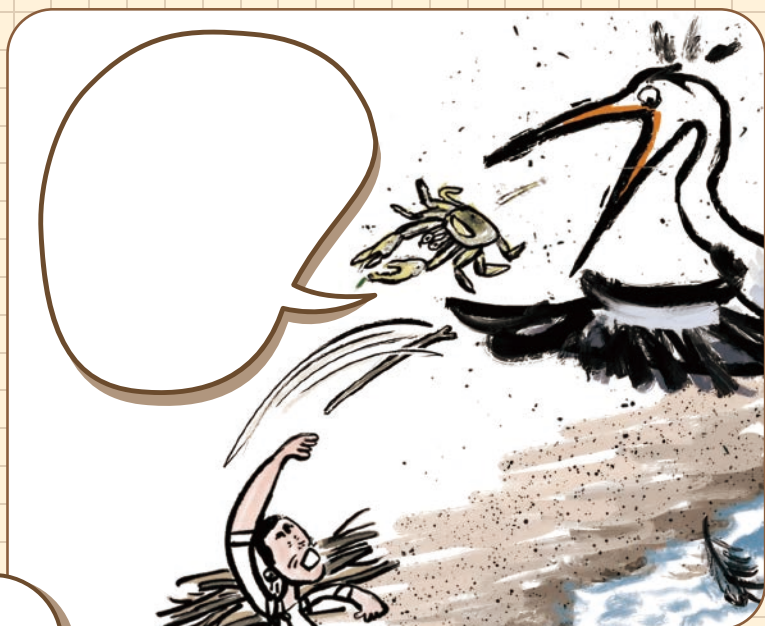
도란도란 구수한 옛이야기에,
달님도 귀 기울이는 밤입니다.



낭 후 환 영

1

정감자에게 은혜를 갚은 거의 인생 4컷 만화의 말풍선에 대사를 써보세요.



2

설화 속 '은혜 사전'을 만들어보세요.

‘거비위’의
은혜 사전

[홍부전] 은혜 갚으러 왔습시다란,
날기 연습을 하다가 부러진 다리를 홍부가 고쳐주었을 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금은보화가 열리는 박씨를 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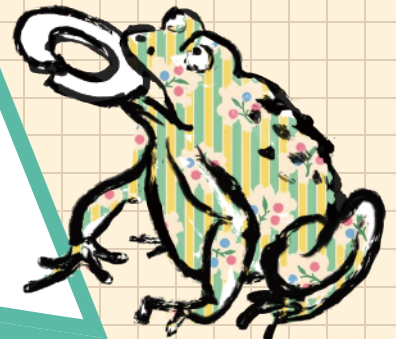
‘게비위’의
은혜 사전

[똑똑! 은혜 갚으러 왔습시다] 은혜 갚으러 왔습시다란,
.....
.....



‘두꺼비위’의
은혜 사전

[똑똑! 은혜 갚으러 왔습시다] 은혜 갚으러 왔습시다란,
.....
.....



3

OO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림책을 잘 읽고,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보문산은 우리나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산이에요. OO이 묻혀있다고 하여 OO산으로 부르다가 보문산이 되었어요.
백제시대 산성인 보문산성에 가면 대전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보문산의 경치는 대전팔경 중 하나로 골짜기마다 약수터가 있어요.



〈대전 보문산성 성벽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해금강 총석정〉, (사)평화문제연구소

총석정은 북한 강원도 통천군 고저읍 총석리 바닷가에 있어요. 바다 위에 뻑뻑이 솟아 있는 OOO처럼 보여서 총석정이라 불렸어요. 6각형, 8각형 등 여러 모양의 OOO들이 신비롭게 세워져 있어요. 총석정은 관동팔경 중 하나로 아침 해돋이가 아름답다고 해요.



4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세요.

- 1) 점을 연결하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색칠해주세요.
- 2)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표시해주세요.



QR 코드를 찍으면 애니메이션 또는 오디오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혜리와 리혜리〉
애니메이션



〈캠핑 가는 날〉
애니메이션



〈사라진 마법의 구슬〉
애니메이션



〈그래! 달라도 괜찮아!〉
애니메이션



〈남떡 북떡 쓱떡쓱떡〉
애니메이션



〈캠핑 가는 날〉
오디오북



〈사라진 마법의 구슬〉
오디오북



〈그래! 달라도 괜찮아!〉
오디오북



〈남떡 북떡 쓱떡쓱떡〉
오디오북



〈뚝뚝!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오디오북

통일 그림동화 06

뚝뚝!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글 선안나 그림 심은숙

발행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 연구개발과

주소 01018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5 홈페이지 www.uniedu.go.kr

편집·디자인·제작출판 (주)스토리메이커 070-4148-3858

발행일 초판 2023년 12월 11일

ISBN 979-11-972240-6-5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주)스토리메이커(2023)

이 동화책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수정, 삭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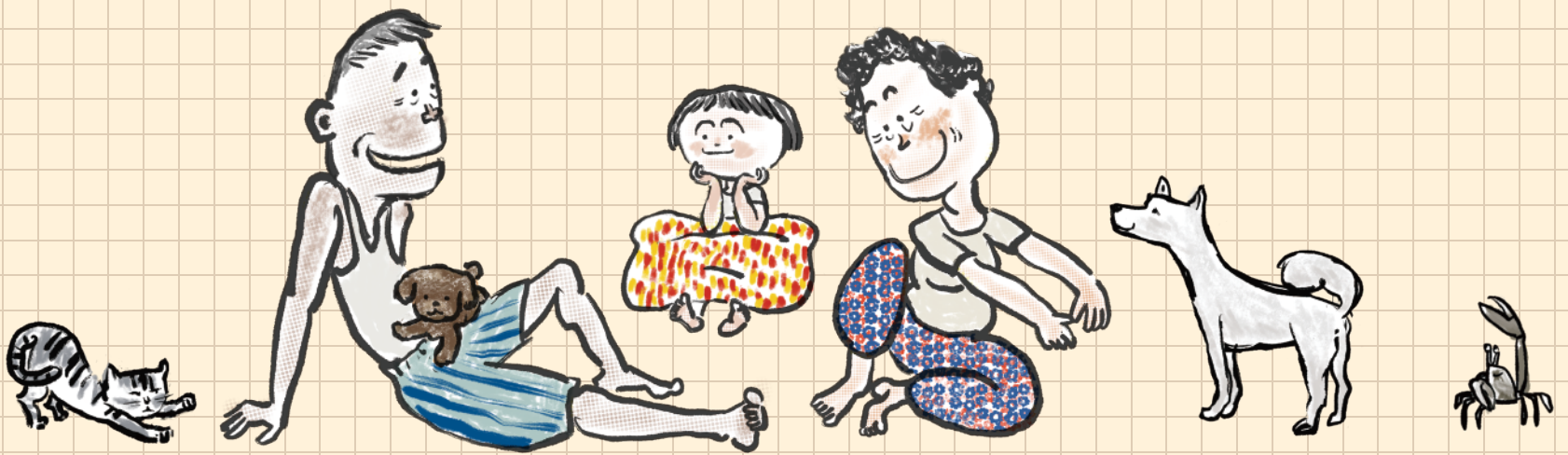
이 책은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국제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공기를 잉크로 인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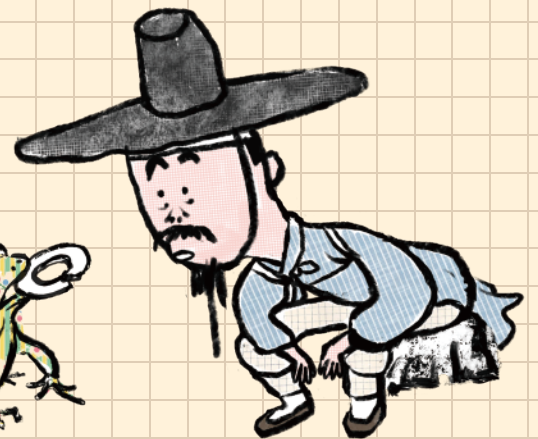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표시사항

제품명 도서 제조년월일 2023년 12월 11일 제조사명 (주)스토리메이커 출판등록 2017년 6월 30일 제 25100-2019-000075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 96-5, 1020호(항동, 구로에이스캠프) 전화번호 070-4148-3858 제조국명 대한민국

⚠ 이 책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책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책장에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똑똑!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는 남북의 잘 알려지지 않은 전설을 발굴하여 그림동화로 엮었습니다.

미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동물이 은혜 갚는 이야기이지요.

다르지 않은 남북의 이야기와 주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세계관을 심어줄 것입니다.

- 서문 중에서 -



값 15,000원



77810

ISBN 979-11-972240-6-5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